

아베, 日최장기 총리 기록...성과 초라한 1등

개헌·납치문제·중일관계 교착 코로나 부실 대응 확진자 폭발 내각 지지율 36.0%까지 추락 최근 건강 이상설까지 확산

하지만 재집권 후 7년 8개월이나 이어진 장기 정권치고는 성과가 빈약하다.

특히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정권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아베 총리는 헌법 해석을 바꿔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정비했으며 개헌을 목표로 삼았으나 임기를 1년가량 남긴 가운데 아베 정권이 주도하는 개헌에 대한 여론의 반감이 큰 상황이다.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났다고 하며 의욕적으로 '아베노믹스' (경제정책)를 추진해 이목을 끌었고 한때 일부 경제 지표를 개선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가 확산한 가운데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연율 기준 27.8% 감소해 전후 최악을 기록했다.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조건 없이 회담하겠다고 했으나 북한 측은 전혀 호응하지 않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의 일본



국빈 방문을 성사시켜 중일 관계에 관한 역사적 정치 문서를 발표하려고 했으나 코로나19 확산과 중국에 대한 일본 국내 여론 악화로 실현 시기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코로나19 대책도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올해 4월 긴급사태를 선포하고 강제력을 동반하지 않는 외출 자제·휴업 요청 등을 중심으로 한 방역 대책을 펼쳤고 하루 신규 확진자가 두 자릿수까지 감소하자 아베 총리는 "일본 모델의 힘을 보여줬다"고

자랑하기도 했다.

하지만 긴급사태를 해제한 후 경제 살리기와 방역의 병행을 표방한 가운데 확진자 증가 속도가 다시 빨라졌고 국내 여행까지 장려하면서 상황이 반전했다.

최근 한 달 사이에 일본의 확진자는 약 3만5000명이나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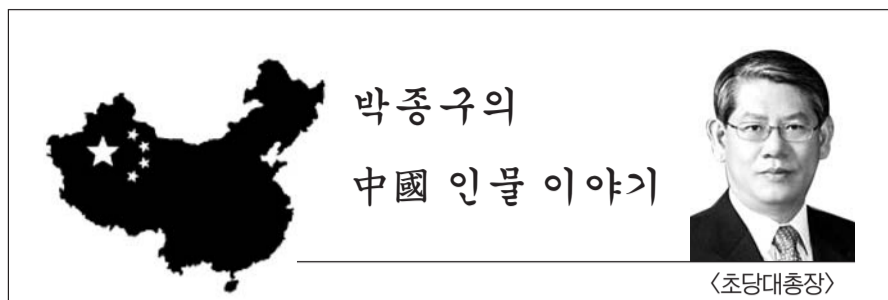
이는 앞선 4개월간 발생한 확진자보다 많은 수준이다.

아베 정권이 코로나19 확산에 갈팡질팡 대응하는 가운데 내각의 지지율은 재집권 후 두 번째로 낮은 36.0% (고도통신)까지 하락했다.

이런 가운데 아베 총리의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분석이 확산하고 있다.

그는 이달 17일 갑자기 게이오대(慶應大) 병원을 방문해 7시간 넘게 검사를 받았으며 일본 언론은 아베 총리의 건강 이상설을 연일 보도했다.

마이니치(毎日)신문의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건강 이상설과 관련해 아베 총리가 즉시 또는 연내에 퇴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50%에 달했다. /연합뉴스



〈246〉 사미원

사미원(史彌遠, 1164-1233)의 자는 동숙(同叔)이고 명주 은현 출신이다. 남송 영종때 권신인 한탁주를 죽이고 정권을 잡아 이종때까지 26년간 재상을 지냈다.

남송 효종때 재상을 지낸 사후의 아들이다. 효종 순희 14년(1178) 진사가 되어 관직에 나갔다. 대리사직, 추밀원 편수관, 기거랑 등 요직을 역임했다. 북송의 명재상 한기의 5세손인 한탁주는 고종비와 효종비의 후원에 힘입어 영종 초 권력을 좌지우지했다. 재상 조 여우를 음모로 내치고 주희 등 주자학 파의 관직 등용도 막았다. 경원위학지금(慶元僞學之禁)을 일으켜 반대파를 조정에서 내쫓았다. 영종비 환향후가 사망하자 권세가 기울었다. 이를 만회

황실에서 키우도록 했다. 여겨의 이름을 귀성으로 바꾸고 가왕으로 책봉해 후일을 대비했다. 학자 정인지에게 명해 제왕학을 체계적으로 학습토록 했다. 황자 황은 사미원의 전횡을 극히 싫어했다. 벽에 걸린 해남도 지도를 가리키며 "언젠가 뜻을 이루면 사미원을 이곳으로 귀양 보내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사미원은 당연히 황자 황을 극히 경계했다. 1124년 영종이 병이 들어 위중했다. 사미원은 조칙을 정해 귀성을 황자로 삼아 새로이 올리라는 이름을 주고 성공공에 봉했다. 동년 8월 영종이 영종 초 권력을 좌지우지했다. 재상 조 여우를 음모로 내치고 주희 등 주자학 파의 관직 등용도 막았다. 경원위학지금(慶元僞學之禁)을 일으켜 반대파를 조정에서 내쫓았다. 영종비 환향후가 사망하자 권세가 기울었다. 이를 만회

남송 영종때 정권 잡아 26년간 재상

하기 위해 무리하게 대금 전쟁을 일으켰다. 40년간 이어진 금과 남송의 화평이 깨졌다. 한탁주의 의도와는 달리 양군은 일진일퇴를 거듭했고 화의의 분위기가 되살아났다. 금은 전쟁을 일으킨 한탁주의 신병을 인도할 것을 화의의 조건으로 내걸었다. 영종의 후비 양씨는 오빠 양차산과 예부시랑 사미원과 힘을 합쳐 권신 한탁주 제거에 나섰다. 1207년 11월 옥진원에서 한탁주 암살에 성공했다.

정국은 일변했다. 양차산과 사미원이 권력의 중추에 진입했다. 1208년 양국은 재차 강화조약을 맺었다. 종래의 속질 관계를 백질(伯姪) 관계로 변경하고, 세폐는 은 30만냥, 비단 30만필로 종전보다 증액키로 하였다. 남송은 전쟁배상금으로 300만냥을 금에게 주고 금이 점령한 회남 지방은 남송에게 돌려주기로 하는 내용이다.

사미원은 영종의 치세 17년간 재상으로 군림했다. 1124년 영종이 붕어했는데 후사가 없었다. 31세때 아들 연왕이 요절했다. 이에 북송 태조 조광윤의 10세손인 조여원을 키워 이름을 순이라 하고 황태자로 삼았으나 1120년 역시 28세의 젊은 나이로 죽었다. 황태자 순이 즉자 양자로 들인 조광윤을 새로이 황자로 삼았다. 이름도 황으로 바꾸었다. 사미원은 태조의 10세손에 해당하는 사후의 아들인 조여구를 찾아내

무리한 이종 옹립, 황자 황의 독살 등으로 조야의 여론이 들끓었다. 진덕수, 위도응 등 다수의 중신들이 사미원을 처벌하라는 상소를 올렸다. 그럼에도 이종 9년동안 정권을 오로지 했다. 부친에 이어 재상직에 오른 사미원은 성정이 잔인했다. 특히 무인을 경시하는 경향이 심했다. 그는 무인을 매사냥의 때에 비유했다. 매는 굶주리면 사냥을 잘하지만 배부르면 도망가 버린다고 말하곤 했다. 각종 포상에서 무인의 공적을 가버어 여겨 제대로 대접해주지 않았다. 그가 사망한 1233년 몽고의 금의 수도인 개봉을 함락시켰다. 금의 애종은 채주로 달아났다가 1234년 송과 몽고의 연합군에 생포되고 금나라는 멸망했다.

진화는 송사 간신전에 들어갔지만 그는 간신전에 포함되는 불명예를 면했다. 그에게 옹녕리(擁寧立理), 즉 영종과 이종을 황제로 옹립했다는 업적이 있음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사미원의 집권 시절 이종은 제대로 정치의 뜻을 펼 수 없었다. 30세의 나이에 친정에 나선 이종은 정치적 등도학자를 등용했다. 금이 멸망하자 잃어버린 북방의 영토를 회복하지는 주전론에 휩쓸려 들어갔다. 결국 몽고군의 남하를 불러들이는 대재앙으로 이어졌다. 사미원은 사후 충헌(忠獻)의 시호를 하사받았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전당대회 마지막 날인 20일(현지시간) 후보 수락 연설을 마치고 부인 질 바이든 여사와 함께 화면 속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전당대회의 피날레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대선후보 수락연설을 몇시간 앞두고 바이든 전 부통령의 고향인 펜실베이니아주를 방문해 맞불 유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 공화, 전당대회 개막...트럼프 대선후보 공식 지명

나흘간 거물급 대거 찬조 연설 바이든과 양자구도 대선정국

민주당보다 일주일 늦게 전당대회를 개최하는 공화당은 당초 노스캐롤라이나주 나 플로리다주에서 오프라인 전당대회 개최를 추진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라 오프라인 행사를 대거 취소하고 화상 전대와 유사한 방식으로 전환했다.

전당대회 기간 본행사는 미 동부시간 기준 오후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되며,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후보 수락 연설과 함께 각종 인사들이 찬조 연설이 이어진다.

공화당은 이날 낮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300여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을 대선 후보로 지명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다른 일정으로 노스캐롤라이나주를 방문할 예정이어서 전격적으로 대의원들이 모인 이곳을 찾을 가능성도 작지 않다.

26일 러닝메이트인 펜스 부통령의 수락 연설에 이어 27일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대선 후보 수락연설을 하면 전당대회는 막을 내린다. 전대 기간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를 비롯해 자녀 등 가족은 물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미치 매킨널 상원 원내대표, 케빈 매카시 하원 원내대표 등 저명인사가 지지 연설에 나선다. /연합뉴스

“너무 오래 집권해 질렸다” 아베에 등돌린 일본 민심 전직 방위상 공개 비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4일 연속 재임 최장 기록을 달성했지만, 유권자의 민심은 사실상 완전히 돌아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론조사 결과에서 이런 상황이 엮여있다. 교도통신이 22~23일 실시한 조사에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36.0%로 2012년 12월 재집권한 후 두 번째로 낮았다.

아베 내각을 지지한다고 답한 이들 가운데 아베 총리를 신뢰한다고 답한 이들은 13.6%, 아베 총리에게 지도력이 있다고 평가한 이들은 4.3%에 불과했다.

7년 넘게 이어진 장기 집권에 유권자들이 이 염증을 느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베 내각에서 방위상을 지낸 나카타니 겐(中谷元) 자민당 중의원 의원은 “너무 길어서 국민이 완전히 질리고 있다. 총리 관저가 무엇을 해도 반응하지 않고 있다”고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그는 아베 총리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설명 책임을 이행하겠다는 패기도 없다”고 꼬집었다. 아베 총리 재집권 후 일본 정국은 ‘아베 1강’ (強)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베 총리의 영향이 절대적이었다.

각료를 지낸 인사가 이처럼 아베 총리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아베 총리의 정치적 중심력이 확연하게 떨어졌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도서출판 상상인

NEXT

상상인을 찾습니다.

도서출판 상상인에서는 우수한 시집원고를 모집합니다.

도서출판 '상상인'은 재능있는 시인들의 작품집 발간을 위해 우수한 시집원고를 수시 공모합니다. 접수받은 원고는 매분기 엄정한 심의를 거쳐 작품집으로 출간됩니다.

107인의 신춘문에 출신들의 상상(앤솔로지)를 시작으로 2020년 1월부터 지금까지 총 9권을 발간하였으며 발간 예정인 시집들도 다수 있습니다. 앞으로 시집뿐만 아니라 평론집, 시조집, 동시집 등 다양한 작품집을 발간해 나갈 예정입니다.

더불어 도서출판 상상인은 문학사업의 일환으로 상상인 창작지원금 제도를 마련해 우수한 시집을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 원고 보내실 곳 E-mail : ssaangin@hanmail.net
- 모집원고 : 시집 한 권 분량(시 50편 이상)
- 출간혜택 : 선인세 일백만원, 해설비 지급 등을 통하여 시집 제작. (필요시 저자는 정가의 70%에 구입)
- 문의 : 010-7371-1871

지금까지 출간된
상상인 시선

상상 (앤솔로지)

봄음이 제 몸을 뒀다
김유석

오렌지 나무를 해담으로 칠해요
최지하

새, 블랙박스
양수덕

방울을 울리며 낙타가 온다
이선애

그녀의 외로움은 B형
-새 글러브 중독자-
마경덕

사랑상처의 이빨
전다형

당신에게는 이르지 못했다
권혁재

메타자본세라이어 시선
강대선

* 7월 발간 예정
김남수 시집 - 동근 것을 보면 아쁘다

* 8월 발간 예정
정영주 시집